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강구

- 산업부, 산·학·연 전문가와 「기업성장 간담회」 개최,
‘피터팬 증후군’ 해소 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금)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3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와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4360)
		담당자	사무관	천서현 (044-203-4361)

참 고**참석자 명단 (19명)**

소속	직급	성명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우진산전	전무	류창수
더존비즈온	부회장	이강수
화신	전무	김태용
코넥	이사	김성구
디에이치 오토리드	상무	김대식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박양균
선문대학교	교수	곽관훈
건국대학교	교수	권용수
인천대학교	교수	김윤경
한양대학교	교수	이병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민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오윤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민웅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	노민선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세훈
산업기술진흥원(KIAT)	본부장	정재학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소장	최태훈
라운넥스텝	대표	김현종